

03. 율곡의 정치론

1) 연원과 영향

율곡의 정치론은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으로 멀리는 공자의 덕치주의와 맹자의 왕도정치 영향을 받았다.

공자는 제자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공자는 경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가 말하기를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자기를 수양하여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자료가 또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요순 임금도 그것을 힘들어했다.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수기(修己)’와 ‘안민(安民)’은 율곡의 정치론 중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 두 단어는 율곡이 지은 문장 곳곳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만언봉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수기’의 요령을 임금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몸을 닦는 데에는 그 요령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상의 뜻을 분발하여 삼대(三代)의 흥성했던 시대로 되돌려 놓기를 기약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학(聖學)을 힘써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의 공효를 다하는 것이고, 셋째는 편벽된 사심을 버리고 지극히 공평한 도량을 넓히는 것이고, 넷째는 어진 선비를 친근히 하여 깨우쳐 주고 보필해 주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율곡은 안민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는 그 요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심을 열어 신하들의 충정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셋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넷째는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기·안민의 덕치주의 외에 맹자의 왕도정치도 그의 정치론이 바탕에 깔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호문답』에서 율곡은 “인민의 도를 궁행하고 사람에게 차

마 할 수 없는 정치를 베풀며, 천리의 바름을 다하는 것은 왕도이고, 인의의 이름을 빌려 권모의 정치를 펼치며 공리를 사사롭게 채우는 것은 패도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맹자가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覇者)이며, 덕으로 인의를 행한 자는 왕자(王者)’라고 규정한 왕도정치의 이념을 따른 것이다. (최정묵, 160쪽)

이렇게 율곡의 정치론은 유교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 이전에 도학정치를 주장하고 개혁 정치를 펼치다 실패한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율곡의 사상은 이후 조선의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암 송시열은 국가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주의 바른 마음, 공평한 마음을 역설했는데 율곡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최정묵, 157쪽)

2) ‘신하의 정치’ : 도통을 중시한 정치

유교 사상에서 혁명론은 백성이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백성이 국왕의 소유물이나 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낸다. 조선시대에 임금은 유럽 절대주의 시대에 절대왕정에서 누렸던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으며 제도 운용상의 관습이나 『경국대전』 등 법전 규정 등으로 국왕이 국사에 대해 자기 멋대로 관철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혹시 어떤 임금이 일시적으로 무력에 의해 자의를 관철할 수 있어도 결국 민심의 이반이나 관료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굴복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반정에 의해서 국왕이 교체되기도 하였다. (정세영, 31쪽.)

선조 2년 1569년에 집필한 『동호문답』을 보면 율곡은 먼저 「임금의 도를 논함(論君道)」이라는 글을 쓰고 그다음에 「신하의 도를 논함(論臣道)」,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힘든 것을 논함(論君臣相得之難)」이라는 순서로 글을 이어간다.

그리고 율곡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힘든 점을 예로 들면서 서로 잘 만나기 어려운 것의 책임을 먼저 군주에게 구한다. 즉 그는 삼대 이후에 왕도를 행한 임금이 없는데, 그동안 그런 왕도를 행한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도를 행하는 진유(眞儒, 참다운 유학자) 역시 임금에게 나가지 않았다고 하며 군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에서도 옛도를 회복하지 못함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진유’의 신하가 없기 때문에 왕도정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정재훈, 97) 왕도정치에서 신하의 존재가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율곡의 정치론은 왕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었던 유교적인 정치 환경에서 일반론적인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세대 먼저 활동했던 퇴계의 사상과 비교해 보면, 신하의 역할을 중시한 그의 주장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형찬은 율곡이 신하의 존재를 특히 강조한 점에 주목하여 율곡의 정치론을 퇴계의 정치론과 비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퇴계는 군왕의 정치를 강조하고 율곡은 신하의 정치를 강조하였다.(김형찬, 221) 나아가 ‘퇴계가 군왕의 정통성 확보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군왕 중심적인 정치를 강조한 데 비해, 율곡은 사실상 군왕과 신하의 협치’(김형찬, 230쪽)를 주장하였다.

율곡이 『동호문답』과 『만언봉사』에서 군왕과 신하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서술한 점을 퇴계의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와 비교해 보면, 퇴계는 임금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율곡은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진육조소』에서 퇴계는 자신이 ‘비록 평소에 지혜도 부족하고, 나라 경영하는 정책에 어둡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한 가지의 어리석은 뜻을 바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고 하며 선조 임금의 수양에 다 소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하고 하면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들어 상세히 논하였다.

- 첫째, 계통을 중시하여 인(仁)과 효(孝)를 온전하게 할 것.
- 둘째, 참소(讒訴)를 막아 양궁(兩宮, 왕궁과 인순왕후의 궁)을 친하게 할 것.
- 셋째, 성학(聖學)을 돈독히 하여 정치의 근본으로 삼을 것.
- 넷째, 도술(道術, 유교의 가르침)을 밝혀 인심을 바로 잡을 것.
- 다섯째, 복심(腹心), 대신(大臣)을 미루어 이목(耳目), 대간(臺諫)을 통할 것.
- 여섯째, 수양과 성찰을 정성스럽게 하여 하늘의 사랑(天愛)을 받을 것.

첫째와 둘째 항목에서 퇴계는 계통을 중시하고 궁궐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선조가 서자의 아들로 이복 삼촌인 명종의 왕위를 계승한, 불안정한 왕통을 가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퇴계의 고민을 보여준다. 즉 퇴계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임금으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그는 왕통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군왕이 왕실과 조정의 중심이 되고, 신하들(대신(大臣)과 대간(臺諫))을 활용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형찬, 226쪽)

반면에 율곡은 『동호문답』을 지어 임금에게 올릴 때 첫 번째 항목으로 군왕의 도를 논하고, 두 번째에 신하의 도를 논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주와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어려움을 논하였다. 그는 신하의 존재가 중요함을 이 항목들 외에도 그 뒤에 열거하는 여러 항목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만언봉사』에서도 율곡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치의 핵심은 군왕이 신하를 신뢰하며 신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치에 힘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문제의 핵심은 임금이 신하를 신뢰하지 않고 또 신하들은 책임 의식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김형찬, 229쪽)

1573년에 율곡은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신하 발언이 중요함을 이렇게 역설하기도 하였다.

“(전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 널리 들어서 그 가운데 좋은 말을 가려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만, 모든 신하가 나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임금의 몸에 모여들어 덕업이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율곡이 1575년에 집필한 『성학집요』는 이러한 입장이 더욱 발전되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성학집요』는 『대학연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논리 전개 방식이나 관점은 전혀 다르다. 특히 『성학집요』는 신하의 입장, 혹은 더 넓게는 사대부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집필되었다. (정재훈, 104쪽)

율곡의 정치사상을 논한 정재훈은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학집요』는 종래 중국의 제왕학 교과서였던 『대학연의』와는 군주관과 군신관계에서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성학집요』에 제시된 군주관은 곧 군주를 군주 홀로의 독존(獨尊)적인 존재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중략) 『대학연의』에서 제시된 ‘성학(聖學)’이 군주 개인의 수신에 대한 논리로 그치고 한·당대를 포함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정치적인 논리를 보완함으로써 완성되는데 비해, 『성학집요』에서는 철저히 군주에게 적용되는 논리를 사대부의 논리에 귀속시켰다.”(정재훈, 102쪽)

즉 『성학집요』는 군주를 사대부의 일원으로 보고 군왕이라도 사대부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또 신하를 군주에게 선택당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군주는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성취한 인격으로 훌륭한 신하를 등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학집요』의 마지막 절에 배치한 ‘성현도통(聖賢道通)’ 항목에서 군왕의 왕통보다는 신하의 도통이 더 중요함을 역설한 율곡의 입장은 이후 예송논쟁에서 군왕도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며 왕실 예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인 측의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18~19세기에 세도를 형성하여 군왕의 권력을 약화하고 지식인 관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형찬, 231쪽)

3) 여론에 의한 정치

율곡은 백성들의 생각과 신하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여론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가 말한 여론의 정치가 오늘날 민주적 여론정치와는 비교할 수없이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 시대 당시로서는 극히 진보적인 주장이었다.

그는 국사의 정립을 위해 공론이 형성되어야 하고, 공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로(言路)가 활짝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언로를 봉쇄하고 죄로써 그것을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언로 개방과 여론 정치를 주장했다.

그는 35세 때, 홍문관 교리 자격으로 임금에게 「옥당에서 올리는 시대의 폐단을 논함(玉堂陳時弊疏)」이라는 상소문에서 ‘언로를 넓혀서 여러 계책을 모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이후 기회만 되면 이러한 여론 정치를 지속해서 제안하였는데, 「재난을 없애는 다섯 가지 계책」이라는 상소문에서도 그는 ‘언론을 열어서 사방의 훌륭한 의견을 정부에 모을 것’을 건의했다. (임옥균, 46쪽)

38세 때 선조 임금을 만난 경연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겸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사사로운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면 선을 행하는 근본이 되지만, 겸양만 부리고 분발하는 의지가 없으면 겸양이 도리어 병통이 됩니다. 전하께서 하신 말씀은 겸손하지만, 공론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남을 그르게 여기는 것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남을 자기만 못하게 여기는 병통이 있으니, 신은 삼가 민망스럽습니다.

임금에게 사사로운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론을 따르도록 부탁한 것이다. 같은 해 어느 날 저녁에 열린 경연에서는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질책을 하기도 했다.

“전하께서는 말씀을 너무 적게 하십니다. 여러 신하의 말에 대해 조금도 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전하께서는 답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입니까? 신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본래 물을 만한 것이 없기는 하지만, 들어와 모신 지 여러 날이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께서 잘 다스리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신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신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임금의 생각을 들려주는 공론의 정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도 선조 임금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율곡은 그해 10월 임금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노골적인 비판을 이렇게 하기도 하였다.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겠습니까? 반드시 귀를 기울여 널리 들어서 그 가운데 좋은 말을 가려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만, 모든 신하가 나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임금의 몸에 모여들어 덕업이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겸손하신 태도가 하교에는 나타나나 공론을 따르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옳다 하시고 남의 말이 틀렸다고 하심에 있어서는 도리어 남이 나만 못하다는 병통이 있으시니, 신은 삼가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임옥균, 53쪽 재인용)

이렇게 율곡은 지속해서 공론에 따른 여론의 정치를 건의하였다.

4) 인(仁)에 의한 정치

율곡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인(仁)에 의한 정치, 즉 어진 정치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임금이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제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정치라고 하였다. (『율곡전서』, 「도적책」)

그리고 그는 정치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통치자는 나라 안의 도처에서 지성으로 어진 사람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어진 사람이 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직책을 맡아 지도자의 부족함을 보완하면 백성과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만언봉사』에서 임금에게 인정을 펼칠 것을 이렇게 호소했다.

“맹자는 양 혜왕(梁惠王)이나 제 선왕(齊宣王)에게 왕도(王道)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인정(仁政)이 아니면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양 혜왕이나 제 선왕의 자질을 가지고도 참

으로 왕도를 실행하고 인정을 실시하기만 한다면 역시 삼왕(三王)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자가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찌 큰소리치거나 좋아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자질이 매우 아름다우시어 인자하심은 백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고, 총명은 간사함을 분별하기에 충분하고, 용맹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기에 충분합니다.”(『만언봉사』)

맹자의 인정에 대해서 임금에게 권하면서 선조 임금의 ‘자질이 매우 아름다우시어 인자하심은 백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므로 결단을 내려서 인의 정치를 펼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상 국가론을 설파한 『동호문답』에서도 임금의 도리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의가 중심이 된 왕도정치를 제안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두 가지 경우도 그 정치방식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의(仁義)의 도리를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고, 천리(天理)의 바름을 본받아 잘 실천하는 왕도(王道)가 그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인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권모술수의 정치를 베풀어 임금 자신의 사적인 공리(功利)를 이루는 패도(霸道)가 다른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인의 정치를 내걸고 백성을 속이는 권모술수의 정치는 패도의 정치이다. 율곡은 그런 정치를 지양하고 인의의 도리를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왕도정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 그는 백성들의 의식을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어진 정치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임금이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 사람들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여 동물과 식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도록 하고 백성들이 산 사람을 양육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데 미흡한 마음이 없도록 한다면 백성들이 예의로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하였다. (『율곡전서』, 「도적책」)

5) 붕당의 반대

율곡은 나중에 반대파들로부터 붕당 정치를 조장한 인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학자들의 분파 활동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는 조선 사회에서 당파 활동이 막 시작된 시기에 살았다. 그는 조선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간 사화가 막 벗어난 상황에서 유학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장차 붕당이 만연하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였다. 특히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던 유학자들 사이에서 분파활동이 가져올 폐단을 경계하며 사림의 결속을 도모하려고 노력했다.

1579년에 올린 소(「대사간을 사직하고 겸하여 동서(東西)의 당파(黨派)를 없앨 것을 진달한 상소」)에서 율곡은 붕당의 폐해를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금 시사(時事)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 많으나 우선 먼저 가장 절실하고 급한 것을 논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예로부터 국가가 믿고 유지하는 것은 사림(士林)이라 합니다. 사

림은 나라의 원기(元氣)라, 사림이 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과격하고 분열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며, 사림이 패하여 다 없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니, 지나간 일이 사적(史籍)에 밝게 실려 있습니다. (중략)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흥하고 망함은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사리로 보나 형세로 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사림은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들리건대, 동서(東西) 붕당(朋黨)의 설이 방금 큰 빌미가 되었다 하니, 이는 신이 깊이 근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소문에서 그는 당시 붕당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했음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임금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신이 근심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사류는 패(敗)하는 것이 많고 이루는 것이 적었으니, 비록 지론(持論)이 순수하게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온 것이라 해도 오히려 소인들로부터 붕당이란 명목을 받아 죽고 귀양 가는 것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하물며 지금 사류의 처사는 중도를 잃어서 참소와 이간이 틈을 타기 쉬우니, 어찌 오늘의 거사가 뒷날의 화가 될 징조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만일 소인이 있어 기회를 엿보다가 교묘하게 일망타진의 계략을 만들어 낸다면, 신은 과격해서 분파되었던 것이 패하여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변하고 나라가 따라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중략)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이상소를 공경대신(公卿大臣)들에게 내리시어 상의하게 하소서. 신의 말이 만일 옳다고 하면 조신(朝臣)들에게 하교하시어 동인·서인의 구별을 씻어 버리고 다시는 구별하지 말도록 하시며, 오직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면 등용하고 어질지 못하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면 버리시며, 조정을 함께 한 선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다시는 의심하고 막힘이 없도록 하시며, 탁한 것은 내치고 맑은 것은 올려서 조정의 기강을 정숙하게 하시고, 혹시 자기의 의견만을 편벽되게 주장하여 공의(公議)를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제재하여 누르시며, 혹시 꼭 분쟁을 일으켜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려는 자가 있으면 배척하여 멀리하소서.”

그는 사림의 파벌화가 또 다른 사화를 가져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까지 하며, 붕당의 폐해를 걱정했다. 그래서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말 자체가 편을 가르고 붕당을 격화시킬 것이므로 언급 자체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임옥균, 178쪽)

이렇게 그는 붕당의 폐단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자신도 동인에게 서인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으로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율곡의 정치론을 살펴봤는데, 율곡의 정치론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개혁을 중시하는 정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정치의 개혁, 경제 제도의 개혁, 교육의 개혁, 국방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만언봉사』, 『동호문답』 등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06. 율곡의 개혁론)에서 상세히 다룬다.